

미국출판계에 활력 불어넣은 북엑스포 아메리카

도서 산업전 위상에 걸맞게 다양한 시상식 · 발표회 열어

표정훈 | 출판칼럼니스트

올해로 103년째를 맞이하는 북엑스포 아메리카(BookExpo America)가 지난 5월 2일부터 5일까지 뉴욕의 제이콥 K. 제비츠 컨벤션 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1900년에 결성된 독립 서점 단체인 미국서적상협회(ABA)가 주도하는 북엑스포는 행사 이름에 걸맞게 도서 전시회라기보다는 도서 산업전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이번 북엑스포에는 모두 2천여 업체가 참여했고 3만 2천여 명이 방문했는데, 시카고에서 열렸던 지난해 북엑스포에 비해 1만명 가까이 늘어난 숫자여서 주최측을 크게 고무시켰다. 저작권 및 도서 구매 담당자들의 경우 7천여명 이상 행사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공적인 북간본에 첫 시상 눈길 끌어

특히 C-스팬(SPAN)사가 운영하는 북티브이(BookTV)가 주요 행사들을 생중계하기도 했다. 엘 고어 전 부통령 부부가 올 가을 출간될 두권의 책을 홍보하는 데 나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엘 고어와 먼 친척 관계인 것으로 알려진 작가 고어 비달도 모습을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

올해의 북센스북상(Book Sense Book of the Year)도 여러 분야에서 수여됐다. 소설 분야에서 레이프 잉거의 《Peace Like a River》(Atlantic Monthly), 논픽션 분야에서 로라 힐렌브랜드의 《Seabiscuit: An American Legend》(Random House)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올해부터 '재발견상' 그러니

까 구간의 성공적인 북간에 처음 상이 수여돼 눈길을 끌었다. 수상작은 루스 스타일 간넷의 아동 도서 《My Father's Dragon》(50주년 기념판, Random House). 아동 도서의 경우 일러스트레이션 도서 분야에서 이안 펠코너의 《Olivia Saves the Circus》(Atheneum), 아동 문학 분야에서 앤 브라체어의 《The Sisterhood of the Traveling Pants》(Delacorte) 등이 수상했다.

행사 기간 중 미국서적상협회 연례 총회도 개최됐는데, 회장 닐 코너티는 지난 몇 년 동안 협회 신규 회원 숫자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독립 서점의 영업 환경 악화로 새로 서점을 개업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을 보여준다. 다만 독립 서점의 시장 점유율이 지난 3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스런 일로 받아들여졌다.

신간 느나 매출액 감소해

이번 행사는 전반적인 불황으로 의기소침해 있는 미국 출판계에 잠시나마 활력을 되찾게 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영리 연구 단체인 도서 산업 연구회(Book Industry Study Group, www.bisg.org)는 미국 전체 도서 매출액이 작년의 24억 1천만 달러에서 올해에는 23억 9천만 달러로 감소하리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더구나 내년에도 1천만 달러 이상 감소하리라는 전망을 내놓아 미국 출판계를 우울하게 만들었다. 연구회의 조사통계 담

당자 앨버트 그레코는 특히 도서 산업계 종사자들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기도 했다.

출판 관련 조사통계자료 전문 기업인 R. R. 보우커(www.bowker.com)측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13만 5천여종의 신간이 나와 2000년에 비해 10% 정도의 증가세를 보였다. 그레코는 이처럼 신간 중수가 증가하는데도 매출액은 감소한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점점 더 늘어나는 신간, 점점 더 줄어드는 매출액'이 미국 출판계의 현실이라는 것.

더블데이 출판사 대표 스티븐 루빈은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너무 많은 책을 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적정량의 신간을 내놓고 그렇게 내놓은 신간을 좀더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블데이는 매년 평균 4백여종을 펴내던 10년 전부터 점차 출간 중수를 줄여온 끝에, 최근에는 연간 2백권 이하의 책을 내고 있다.

첫째날인 5월 2일에는 재고 관리를 포함한 마케팅 문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어서 많은 서점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뉴저지의 베넷북스 대표 존 베넷과 퍼블리셔스 위클리 선정 올해의 서점상을 수상한 하버드 북스토어 대표 캐롤 혼의 주제 아래, 재고 관리, 구매 예산 관리, 반품 문제, 배송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토론했다. 기업, 학교 등 특정 성격의 커뮤니티에서 어떤 언론 매체가 도서 판매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도 눈길을 끌었다. 그밖에 독자들의 감성적 도서 구매 행태와 합리적 도서 구매 행태에 대한 비교도 토론 참석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끈 주제였다.

출판 관련 각종 조사통계자료들이 '대체로 흐림'을 나타내는 가운데, 이번 북엑스포는 미국 서점업체가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이는 자리였다.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출판계 현안에 대처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북엑스포 아메리카는, 내년에는 5월 말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